



제 2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개막



연변특별전시구역 일각

/ 주동기자

5월 15일,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장춘농업박람원에서 개막되었다. '책 향기 풍기는 동북, 독서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동북 3성 1구의 선전사상문화계에서 습근평문화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전민독서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매체이자 업계 교류를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은 3만평방미터에 육박하는 면적에 전국 출판전시관, 서향산해(书香山海) 전시관, 문화산업무형문화유산전시관, 소장물거래전시관 등 4대 주제 전시관과 기획주제출판전시구역 등 12개 특색전시구역 및 성내 12개 지역 특

색을 갖춘 신화서점, 5개 박물관(기념관) 그리고 장춘 '자유산'산업종합체를 포함한 총 18개의 분회장을 설치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전시 판매되는 도서는 40만종을 넘는다.

도서 거래의 중요 플랫폼 그리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로 된 이번 박람회는 문화와 관광 융합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도 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 기간 길림성 문화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디지털 문화유산 보호 플랫폼 '도시가열독'(城市可阅读)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 출시 행사, 웅위로운 장백산—중로 화가 주제유화전시, '서향중국 만리행—길림역',

제1회 북방잡지 고품질 발전 포럼,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기에 전시공연, '송화석 전시—책과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신간 출판기념회, 독서 보급 등 140여차 이상의 문화 행사를 펼치게 된다.

이번 박람회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특별전시구역을 마련했다.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유한책임회사 세 출판단위는 3호관에 580평방미터의 면적에 1,000여종에 달하는 각종 도서, 정품간행물 10여종, 문화창의제품 400여종을 전시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출판업 개혁 발전과 융합 혁신의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다. 도서박람회 기간 연변의 출판단위들은 새책발표회, 원작 문학작

품 공유회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펼치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5일간 지속되는데 주최측은 '1 무료 + 다중할인'(一免+多重优惠) 특별 혜택을 비롯한 박람회 전 기간 무료 입장, 주최장 장춘농업원의 농경박물관 등 무료 개방, 도서 특가 판매·소비 금액별 할인, 정부 문화 소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좋은 책이 천만가정에 전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성은 습근평 문화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동북 및 길림 시찰 시 중요 연설과 지도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새시대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문화강성 건설과 서향사회 건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또한 출판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길림전서》 편찬과 길림 문맥 진흥 프로젝트를 실시해 우수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중앙선전부 정신명명 건설 '5개 1 공정' 우수도서상을 연속 6차례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14년간 연속 전민독서를 중점 민생사업에 포함시켜 전민독서 문화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길림의 변형 발전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주입하였다.

우리 성은 이번 도서박람회를 계기로 책을 매개로 하는 출판업의 남북자원 교류와 산업 체인 협력의 업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해민 조치를 통해 전민독서를 심화하고 서향사회를 건설하며 문화와 관광 융합의 다원화된 형식으로 문화 소비 신생태를 구성하여 동북 문화의 새 명함인 '동북도서교역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문화 건설 성과가 인민대중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힘쓰게 된다.

/ 최화 주동 류향회
손맹빈 김명준 기자

길림대학

조선어—국제경제및무역 전공 추가

길림성학위위원회는 최근 <길림대학 이중학사학위 복합형 인재 양성 항목 설립 신청에 관한 반첩(批复)>을 정식으로 발표, 길림대학의 7개 이중학사학위 복합형 인재 양성 항목(이하 '이중학사학위항목')이 성공적으로 비준을 받았다. 7개 학위는 아래와 같다.

빅데이터관리 및 응용—법학, 공상관리—법학, 공공관리—스마트제조공정, 시장마케팅—데이터과학 및 빅데이터기술, 조선어—국제경제및무역, 로어—국제경제및무역, 일어—국제경제및무역이다.

이중학사학위항목은 외국언어문화학원의 조선어와 경제학원의 국제경제및무역 두개 국가급 일류 본과 전공 건설점을 기반으로 다학과 교차원의 복합형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국가전략 및 지역 경제무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이번 이중학사학위는 길림대학의 완비된 학과 우세, 국제화 학교 운영 우세, 자연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동북아 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중한(中)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초점을 맞춰 중한 국제경제무역 협력에 참여할 수 있고 언어가 통하고 국가를 잘 료해하며 분야에 능통한 고수준 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해외진출 전략을 위해 인재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조선어—국제경제및무역' 이중학사학위 복합형 인재 양성 항목의 학제는 4년이며 양성 계획을 완료하면 문학학과와 경제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받는다.

/ 인민넷—조문판

연변 동성용진 국가 농업산업강진 평가 통과

일전 농업농촌부 판공청에서 세 번째 농업산업강진 대상 평가를 통과한 지역 명단을 공포한 가운데 룡정시 동성용진이 해당 명단에 올랐다.

근년에 연변에서는 시종일관 주도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며 자원요소를 집결하고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사슬을 연장, 보완, 강화하고 비교적 강한 종합경쟁력을 갖춘 특색산업을 구축하는 전반적인 요구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융합 발전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농업산업강진 신청 등 농업산업 융합 개발 대상을 적극적으로 계획했는데 1, 2, 3 차 산업 융합의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다.

2023년 룡정시 동성용진은 국가 산업강진 건설 명단에 입선, 대상 총투자액이 4,170만원에 달했다. 대상 실시이래 이 진은 입쌀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전 산업을 발전 모식을 구축하여 선도기업이 재배, 가공, 판매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했다.

산업 발전 과정에서 동성용진은 조직 모식을 혁신, 6개의 농업산업화련합체를 육성하고 건설했는데 그중에는 성급, 주급 주도산업 련합

체가 각기 1개씩 포함되었다. '선도기업 + 합작사 + 농가' 경영형식을 통해 5개의 농민합작사, 3개의 가족농장을 발전시켰는데 선도기업 내부 성원 원료 구매 비율이 30%를 넘어서었다. 이 모식은 전 촌 산업이 련합 협력의 긴밀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고 경영 규모화, 생산 표준화, 판매 브랜드화의 고품질 발전 목표를 달성하게 했으며 향촌 산업 진흥과 농민의 다원화 소득 증가를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2024년 동성용진의 벼 재배면적은 1,476.69헥타르, 벼 생산량은 1.1만톤, 벼산업 전 산업을 생산액은 2.78억원에 달했다. 그중 1차 산업 생산액은 0.42억원, 2차 산업 생산액은 1.45억원, 3차산업 생산액은 0.91억원이었다. 산업 발전은 2,600여가구(진 외부 포함)의 농가가 현지 혹은 가까운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는바 가구당 획득한 추가 소득이 평균 1,500원을 초과했으며 산업 융합 주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연변은 농업산업이 군집화, 전 산업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전 주 농업농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싣게 된다.

/ 종합

단오 련휴 기차표 17일부터 발매

국무원 판공청 <2025년 부분적 명절 배치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단오절 휴식 기간은 5월 31일(토요일)부터 6월 2일(월요일)까지 도합 3일이다.

이 기간 기차표는 17일부터 정식 판매된다. 승객들은 기차표 발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매 정보를 기입하

고 미리 승차인, 열차편, 좌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차를 탈 때 부주의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임시 승차 신분증명을 신청하고 철도 12306 앱에서 표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철도 12306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 연변라디오 TV넷

연길—대련—서안 항로 개통

13일 18시 05분, 천진항공에서 운행한 GS7645 항공편이 연길조양 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서안—대련—연길 항로의 첫 운행을 순조롭게 마쳤다.

서안—대련—연길 항공편(GS7645/6)은 E190 기종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운행된다. 서안—대련—연길 항공편(GS7645)은 13시 15분에 서안에서 리륙해 15시 25분에 대련을 경유, 18시 05분에 연길에 도착한다. 연길—대련—서안 항공편(GS7646)은 18시 45분에 연길에서 리륙해 20시 25분에 대련을 경유, 23시 50분에 서안에 도착한다.

연길공항 항로개발판공실 수소현은 "이 항로는 연길공항에서 항로 네트워크 배치를 최적화하는 관건적인 성과로 동북지역과 서북지역간의 련계를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세 지역의 관광업을 발전시켜 문화관광자원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문화교류, 무역왕래, 인재교류, 지역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92명의 관광객이 해당 항공편을 통해 연길을 방문하고 89명의 관광객이 서안으로 떠났다.

/ 연변넷

행복터전 촌·사회구역 호조 프로젝트 동북지역 추진 및 강습교류회 연번서

14일—15일, 중화자선총회, 길림성자선총회,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복터전 촌·사회구역 호조 프로젝트 동북지역 추진 및 강습교류회가 룡정에서 열렸다.

중화자선총회 부회장 손소화가 활동에 참가해 연설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초 부서기이며 부주임이며 성자선총회 회장인 전금진,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이 활동에 참가해 축사를 했다. 중화자선총회 비서장 변지위가 활동을 사회했다.

이번 교류회에 전국 26개 성, 직할시, 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탄의 각급 자선총회 책임자, 분관 지도자와 업무공간들이 참가했다. 교류회

기간 주최측은 3차례의 성급 행복터전 프로젝트 경험교류, 9개 시, 현 행복터전 프로젝트 기층 경험교류, 7편의 행복터전 프로젝트 방면의 주제강의 및 행복터전 프로젝트 전국 련동 련석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연길시 건공가두 연화사회구역, 진학가두 로병사의 집, 공원가두 원위사회구역에 심입해 현장 참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가동된 행복터전 촌·사회구역 호조 프로젝트는 행정촌과 사회구역을 기초로 촌·사회구역의 실제 수요를 발굴하고 촌·사회구역 서로돕기기금 건립, 고향 풍모 전시를 뉴데로 촌민, 주민과

고향 건설을 관심하는 열혈인사들이 촌·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흡입하여 공동으로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 진흥을 촉진하는 데 자선의 힘을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길림성은 2021년부터 행복터전 촌·사회구역 호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021년 5월, 길림성 제1진 행복터전 촌·사회구역 호조 프로젝트 시범점으로서 선정된 이래 연변에서는 시종 '단건설 인술, 시범 선행, 수요 향도, 다자 참여' 원칙에 따라 기층당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재직당원 사회구역 심입', '당원 이중등록(双报到)' 등 사업과 결부하여 사회구역, 사회조직, 사회사업일

군, 사회구역 자원봉사자, 사회구역 공익자선자원 등 5개 유형 주체의 련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혁신적으로 '인터넷 + 공익', '일로일소 관심, 사랑' 등 활동을 실시하여 곤난가정, 독거로인, 어려움에 처한 류재아동, 장애인 등 약소군체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겨울할 곳'이 있을뿐더러 안전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목표의 실현을 추동하여 시범점 프로젝트의 시달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 연변에서는 루계로 233개의 호조 프로젝트 대상을 발표했는데 1,147개 촌·사회 구역에 파급되며 만명 이상의 대중이 혜택을 향수했다.

/ 연일

압록강변 조선족향 설립 40 돛 맞아

▶ [관련 기사 3면]

